

디지털정치 실증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박영민†

A Study on the Meta Analysis of Korean Digital Politics

Young-Min Park†

ABSTRACT

This study is to carry out meta-analysis on doctoral dissertations which had been written after 2004 when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digital politics had begu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endency of recent analysis. For this purpose, it classifies the research trends of digital politics a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rocess, political advertising and election campaigns, and examines the researcher's definition, framework of empirical analysis, and all the results. Moreover, the study systematically summarizes the research model, analysis unit, concept and its components in order to ensure availability so that the information could be available for the further research.

Key Words : Meta analysis, Digital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rocess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논문접수 : 2010년 12월 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 2011년 2월 2일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성장 추세는 디지털정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350만 명, 트위터 사용자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소통 방식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며, 수많은 개인들이 정치주체로 나설 수 있는 매개물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정치참여가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추진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했고, 정치적 권위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의제설정 권력을 변화시켜 정치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SNS 기반 의사소통 환경은 시민의 정치적 효능을 높여주며, 확산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정치참여의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정치참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정치참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참여의 범위, 내용, 형태에 있어 혁신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9] 셋째는 디지털 정치참여가 전자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실질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1] 따라서 디지털정치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근거를 이루는 실증연구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디지털정치 관련 국내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한국정치 분야 논문을 선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의 시기를 2004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2004년 제17대 총선은 인터넷 정치참여의 중대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한 네티즌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둘째, 이 시기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이슈가 등장하면서 사이버 토론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문화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8]

2004년 이후 발표된 디지털정치 관련 국내 박사학위 논문은 총 16편이며, 실증연구를 시도한 논문은 7

편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논문의 연구모형,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디지털정치와 관련된 연구논문의 핵심 개념의 정의와 구성요소, 연구방법을 일별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디지털정치 관련 경험적 연구

2.1. 최근 디지털정치 관련 실증연구

디지털정치 관련 논문들은 세 가지의 특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인터넷 정치참여는 수용자의 행위와 의식변화, 대의제 및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로는 정태환(2005), 류정호(2009), 박봉수(2009) 등의 논문이 있다. 둘째, 인터넷이 정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작동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대표적 논문으로는 신범순(2006), 박주현(2008) 등이 있다. 셋째, 디지털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에 대한 연구는 박현길(2007), 박창문(2009)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보통신의 특성이 수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선거캠페인에 어떻게 활용됨으로써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 정치참여 | 정치과정 |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 |
|-------------------------------------|------------------------|------------------------|
| 정태환(2005) 류정호(2009) 박봉수(2009) | 신범순(2006) 박주현(2008) | 박현길(2007) 박창문(2009) |

[그림-1] 디지털정치 관련 최근 연구경향

2.2. 디지털정치 실증사례 연구

2.2.1. 정치참여 분야 실증연구

① 개념정의 및 구성요소

정치참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의 핵심개념, 정의 및 개념의 구성요소는 <표-1>과 같다. 정태환(2005)은 인터넷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화’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정당, 정부기구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만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는 인터넷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인터넷은 과거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로서 정당 등의 영향은 줄어들었으며, 인터넷 스스로가 의제설정(agenda-setting), 정책토론(public forum), 검증(scrutiny), 평가(assessment) 등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류정호(2009)는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을 분석하면서 ‘온라인 사회자본’과 ‘온라인 정치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크기’, ‘인터넷 사회’, ‘인터넷 규범’ 등 3가지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정치자본은 ‘인터넷 정치매체인식’, ‘인터넷 정치효능감’, ‘인터넷 기술숙련도’, ‘정치네트워크 근접성’ 등을 제시하였다.

박봉수(2009)는 인터넷과 현실정치 참여 관련성을 동원이론에 근거하여 익산시 주민을 대상사례로 설정하였다. 특히 인터넷 사용행태 및 정치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정치참여의 유형을 결정하며, 정치참여의 유형은 투표, 의견교환 및 집회참석, 지역문제 관여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정치사회화 및 정치참여분야 연구의 핵심개념 및 정의와 구성요소

| 연구자 | 핵심개념 | 핵심개념의 정의 | 개념의 구성요소 |
|------------|-----------------|---------------------------------------|----------------------|
| 정태환 (2005) | 정치사회화 | 인터넷 스스로가 의제설정, 정책토론 등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정치사회화 매개체 |
| 류정호 (2009) | 온라인 사회자본 및 정치자본 | 인터넷 정치참여는 온라인 사회자본과 정치자본이 결정한다. | 인터넷 사회자본 인터넷 정치자본 |
| 박봉수 (2009) | 정치참여의 유형 | 인터넷 사용행태 및 정치활동이 정치참여 유형을 결정한다. | 정치참여의 유형 |

② 분석방법

정치사회화 및 정치참여 분야의 실증연구 분석 방법은 <표-2>와 같다. 정태환(2005)은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연구자는 주요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인터넷 사용, 정치의식과 태도(정치지식),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 리더십배양을 상정하고 있다.

<표-2> 정치사회화 및 정치참여분야 연구의 분석방법

| 연구자 | 표본집단 | 측정수단 | 분석방법 |
|------------|-----------------------|-----------------------------------|-------------------------------------------------|
| 정태환 (2005) | 고등학생 및 대학생 N=1,130 | 표본 집단(남녀 고등학생·대학생) 설문 조사 | 통계적 수준 5%의 빈도, 백분비, 교차분석, 최적화 척도회귀분석 |
| 류정호 (2009) | 남녀 인터넷 사용자 N=514 | 신뢰계수는 0.8 이상의 구조화된 설문지 | 기술통계분석, 일원량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
| 박봉수 (2009) | 익산시민 표본추출 N=219 | 주요변인은 신뢰도 .700 이상의 5점 등간척도 설문지 사용 | Cronbach's Alpha Test,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이중회귀분석 실시 |

독립변인으로는 인터넷 이용도 및 정치활동 참여를 준거변인, 종속변인으로 정치사회화(청소년의 정치지식, 청소년의 정치참여,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의 리더십배양)를 설정하였다. 이에 16세~19세 사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130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통계적 수준 5%). 빈도, 백분비, 교차분석, 최적화 척도회귀분석(optimal scaling regression) 기법을 활용하였다.

류정호(2009)는 사이버공간의 정치참여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통적 정치참여 변수인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 심리변수, 그리고 온라인 사회자본과 온라인 정치자본 변수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사회자본과 온라인 정치자본이 인터넷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상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류정호는 514개 표본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일원량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위해 KMO(Kaiser-Meyer -Olkin Measure)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전통적 정치

심리 변수, 미디어 이용 변수, 온라인 사회자본 및 정치자본, 인터넷 정치참여 유형을 선정하였다.

박봉수(2009)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19개의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요인과 요인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 정치활동'의 3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현실정치 참여'를 설정하였다. 신뢰도는 주요변인 10가지 모두 .700 이상이며, 5점 등간척도인 Likert Scale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③ 분석결과

정치사회화 및 정치참여 분야의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정태환(2005)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은 정치사회화 4개 영역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도(91%)는 높으나, 인터넷 정치활동참여율(31.9%)은 낮았다. 인터넷 이용과 청소년 정치사회화의 관련성은 정책의견 제시(5.4%), 청소년의 리더십 수준(0.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터넷사용도와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참여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은 현실정치 인식 전체 변량의 4.5%를 설명하고, 인터넷사용도 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 참여가 현실정치인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호(2009)는 전통적 정치참여 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성, 연령, 수입, 학력)와 정치심리변수(정치관심, 정치신뢰, 정치 효능감)는 인터넷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인지적 정치참여는 정치매체로의 인식($\beta = .359, p < .001$)과 인터넷 정치 효능감($\beta = .259, p = .001$)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행위적 참여에 있어서는 정치네트워크 근접성($\beta = .359, p < .001$)과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beta = .349, p < .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수(2009)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교환·집회참석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보면, 냉소주의($r = -.169$), 정치 효능감($r = .337$), 정치행위($r = .462$), 정치적 의사표시($r = .220$), 정보추구($r = .260$)로 나타나 정치적 냉소주의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정(+)

<표-3> 정치사회화 및 정치참여분야 연구의 분석결과

| 연구자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결과 |
|-----------|---------------------------------------|-----------------|--------------------------------------------------------------------------------------------------------------------------------------------------------------------------------------------------|
| 정태환(2005) | 인터넷 이용 | 정치사회화 | 인터넷 이용과 청소년 정치사회화 관련성은 정책의견제시 5.4%, 청소년 리더십 수준은 0.2%, 현실정치 인식은 인터넷사용도와 인터넷 정치활동참여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류정호(2009) |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심리변수, 온라인 사회자본과 및 정치자본 변수 | 정치참여(온라인, 오프라인) | 정치참여는 정치매체로의 인식($\beta = .359, p < .001$)과 인터넷 정치 효능감($\beta = .259, p = .001$)이 결정적이며, 행위적 참여는 정치네트워크 근접성 ($\beta = .359, p < .001$), 인터넷 정치참여 기술($\beta = .349, p < .001$)이 영향을 미쳤다. |
| 박봉수(2008) | 사회경제적 지위, 인터넷 이용행태, 인터넷 정치활동 | 현실정치 참여 | 선거·투표참여는 고연령 투표·서명행위가 높고(T값 1.821, β 값 .156). 인터넷의 지역문제 관여도는 고연령($t = 5.562$), 온라인 정치행위가 활발할수록($t = 5.562$) 지역문제에 관여하고, 숙련도($t = 2.591$) 및 정치 효능감($t = -.1030$)이 낮을수록 지역문제 관여가 높음. |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거·투표활동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연령($r = .165$), 냉소주의($r = .166$), 정치 효능감($r = .351$), 정치적 의사표시($r = .205$), 정보추구($r = .465$)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역문제 관여 요인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숙련도($r = -.148$)만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정치행위($r = .444$), 정치 효능감($r = .311$) 등은 모두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거·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연령의 T

값이 1.821, β 값은 .156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서명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활용이 의견교환·집회참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령, 정치적 효능감, 인터넷상에서 정치행위가 활발할수록 의견교환이나 집회참석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활용이 지역문제 관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령($t=5.562$)이 높을수록, 인터넷상에서 정치행위가 활발할수록(정치행위 $t=5.562$) 지역문제에 많이 관여하고, 숙련도가(숙련도 $t=2.591$) 낮고 정치 효능감(냉소주의 $t=-1.030$)이 낮을수록 지역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인터넷의 정치과정 영향력에 관한 실증연구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의 정치과정 영향력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개념과 구성요소, 연구방법, 그리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념정의 및 구성요소

인터넷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관련 분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핵심개념의 정의 및 개념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은 <표-4>와 같다. 정치과정 영역에 있어서는 주로 정당과 선거에 있어서 디지털 수단의 영향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우선 신범순(2004)은 “네티즌의 투표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념적 성향, 정치적 태도, 오프라인 정치활동, 인터넷 정치참여로 설정하고 있다. 이념적 성향은 개인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갖는 입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은 구성개념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작화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관심은 정치적 이슈나 정치일반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표-4> 정치과정 관련 연구의 핵심개념 및 정의와 구성요소

| 연구자 | 핵심개념 | 핵심개념의 정의 | 개념의 구성요소 |
|---------------|-----------------------------------------------------------|--------------------------------------------------------------------------------------------------------------------------------------------------------------------------------------------------------------------------------------------------------------------------------------|-------------------------------------------------------------|
| 신범순 (2006)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념적 성향, 정치적 태도, 오프라인 정치활동, 인터넷 정치참여 | ‘이념적 성향’은 개인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갖는 입장과 태도를 의미하며,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은 구성개념, ‘정치적 관심’은 정치적 이슈나 정치일반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 ‘인터넷 정치참여’는 인터넷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정당,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거나 정치적 관심을 유지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공적 활동을 의미. | 이념적 성향, 정치적 태도 |
| 박주현 (2008) | 의제과급, 선거기사, 보도태도 및 연성·경성 뉴스, 댓글의 성격, 뉴스 생산자, 제목수정, 텍스트 특성 | ‘의제과급’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들이 확산되고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중요 의제화 되는 현상, ‘선거기사’는 노출된 스트레이트기사, 해설·배경, 칼럼, 스케치, 가십, 인터뷰, 인물·동정, 사진, 만화, 만평, 동영상 등에서 대선과 관련 있는 인물 또는 선거일정 및 정책, 토론회 등 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치성 기사로 정의. | 제목, 기사, 사진, 만평(만화), 재매개성,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성, 노드, 링크, 팔드콘, 뉴스박스 |

또한 인터넷 정치참여는 인터넷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정부, 정당,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자신 및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참여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관심을 유지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공적 활동을 의미한다.

박주현(2008)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

와 인터넷 신문의 뉴스 가운데 선거관련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박주현은 내용분석을 위해 주요 분석개념들의 정의는 분석단위 및 유목선정에 기초하였으며, 의제과급, 선거기사, 보도태도 및 연성·경성 뉴스, 댓글의 성격, 뉴스 생산자, 제목수정, 텍스트 특성 등 5가지를 주요 분석개념으로 삼고 있다. 첫째, 의제과급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들이 확산되고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중요 의제화 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둘째, 선거기사는 '노출된 스트레이트기사, 해설·배경, 칼럼, 스케치, 가십, 인터뷰, 인물·동정, 사진, 만화, 만평, 동영상 등에서 대선과 관련된 인물 또는 선거일정 및 정책, 토론회 등 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치성 기사'를 의미한다. 셋째, 보도태도 및 연성·경성 뉴스의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과 제목, 사진, 만평의 성격을 긍정(화합), 중립, 부정(비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긍정적 태도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우호적인 느낌과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용어)과 느낌을 전달하는 제목, 기사, 사진, 만평(만화)'을 의미하며, 부정적 태도는 긍정적 태도와 반대이고, 중립적 태도는 '중·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고 평이한 내용을 담은 제목, 기사, 사진, 만평(만화)'를 말한다. 아울러 경성뉴스는 '정보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성을 분석적으로 담고 있는 정치, 경제, 외신부분의 기사'를, 그리고 연성뉴스는 '뉴스의 출처가 사적 영역이면서 인간적 흥미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스포츠, 연예, 오락, 사회성 기사'를 의미한다. 넷째, 댓글의 성격은 내용에 따라 긍정일변도, 부정(비판일변도), 욕설일변도, 기사와 전혀 무관, 찬반의견 팽팽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섯째, 뉴스 생산자, 제목수정, 텍스트 특성의 경우, 뉴스 생산자는 자급기사와 타급기사로 분류하고, 제목 수정은 '자급기사와 타급기사의 제목 중 단어 및 조사가 추가·축소되거나 2개 이상의 제목을 혼합하여 원래 제목과는 다르게 노출시킨 경우'를 말한다. 텍스트 특성은 재매개성,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성, 노드, 링크, 골드존, 뉴스박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분석방법

인터넷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관련 분야 실증 연구의 분석방법을 정리한 것은 <표-5>와 같다.

<표-5> 정치과정 관련 연구의 분석방법

| 연구자 | 표본집단 | 측정수단 | 분석방법 |
|------------|----------------------------------------|--------------------------------------------------|-------------------------------------------------------------------------------------------------------------------------------------------------------|
| 신범순 (2004) | 인터넷 이용자 N=1,020 | 2002년 당시 선거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터넷 이용자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 사용 | 요인분석, 군집분석 |
| 박주현 (2009) | 인터넷 이용자 (N=500),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참여 관찰 병행 | 온라인 설문 조사, 내용 분석과 설문 조사는 기술 통계,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 검증 | 내용분석은 독립형 인터넷 신문, 중속형 인터넷 신문, 포털 사이트로 구분 각 2개씩 총 6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 통계처리는 기술통계와 모수통계 (ANOVA, t-검증), 비모수통계(χ^2 검증) 사용, 심층 인터뷰는 5명의 인터넷 매체 관련자 심층 인터뷰 |

신범순(2004)은 2002년 당시 선거인 특성과 실제 인터넷 이용인구를 대표하는 총 1,02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자는 가설검증에 선행하여 각 변인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이념적 진보성향, 정치적 태도, 오프라인 정치활동을, 인터넷 정치참여 문항은 개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정치권여 네티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인터넷 정치참여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박주현(2008)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과 의제과급, 게이트키퍼의 결정 요인과 이용효과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내용분석과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 전국 유권자들 가운데 인터넷 사용자 중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둘째, 내용분석은 독립형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중속형 인터넷 신문(조선닷컴, 인터넷 한겨레), 포털 사이트로 구분하여 각각 2개씩 총 6개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분석과 설문조

사의 통계처리는 기술통계와 ANOVA, t-검증 등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인 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셋째, 심층 인터뷰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신문과 포털 사이트의 선거기사가 어떻게 생산되고 공급되는지, 그리고 내·외부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5명의 인터넷 매체의 뉴스 에디터, 편집기자, 팀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③ 분석결과

인터넷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관련 실증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6>과 같다.

신범순(2004)은 유권자 전체, 네티즌, 비네티즌을 구분하여 16대 대선에서의 투표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참여에 있어서는 네티즌(N=494)은 인터넷 정보탐색(probit 계수 0.3053)과 오프라인 의사표현(0.3550)을 많이 하고 정치적 효능감(0.3167)이 높고, 고연령층(0.0265) 일수록 투표에 많이 참여하였으나, 진보성향 네티즌(-0.4891)은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네티즌(N=526)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높은 유권자(0.3125)의 투표율과 정치적 효능감(-0.2801)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학력 유권자(-0.2222)의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후보선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호남출신(네티즌 1.2073, 비네티즌 1.0329) 및 저연령층(네티즌 -0.01553, 비네티즌 -0.0183)이 진보후보인 노무현 후보 선택이 많았으며, 영남출신(네티즌 -0.4698, 비네티즌 -0.2754)인 경우 보수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지일관성에 있어서는 네티즌의 경우 정보탐색(0.1755)이 지지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의사표현(0.2777)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출신 네티즌(0.3217), 고학력(0.2260) 및 고연령 네티즌(0.0473)의 경우도 지지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네티즌의 경우는 정치적 효능감(0.3032)이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프라인 정치행동(-0.3115)에 적극적인 유권자 중에서 지지후보를 변경한 사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대통령후보 자질, 국정수행능력)과 독립변인(이용자 특성, 이용 동기,

의제과급 효과)을 각각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 동기, 의제과급 참여 중 어떠한 요인이 대통령 후보자 자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표-6> 정치사회와 및 정치참여분야 연구의 분석결과

| 연구자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결과 |
|------------|------------------------------------------------|---------------------------|-----------------------------------------------------------------------------------------------------------------------------------------------------------------------------------------------------------------------------|
| 신범순 (2004)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념적 성향, 정치적 태도, 오프라인 정치활동, 인터넷 정치참여 | 투표행동(투표 참여, 후보선택, 지지 일관성) | 네티즌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고연령층 일수록 투표에 많이 참여하였음(단, 진보성향 네티즌 기권율은 높음). 비네티즌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고학력 유권자의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다음. 후보선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호남출신 및 저연령층은 진보후보, 영남출신은 보수후보를 선호하였음. 네티즌의 경우 정보탐색이 지지일관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의사표현에 적극적이었음 |
| 박주현 (2009) | 이용자 특성, 이용 동기, 의제과급 효과 | 대통령후보 자질, 국정수행능력 | 이미지와 결단력, 순수성, 개방성, 신뢰성, 지도력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소는 신뢰성, 지도력, 결단력 순임. |

이미지와 결단력, 순수성, 개방성, 신뢰성, 지도력의 6가지 요소 중에서 독립변인들에 의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소는 신뢰성, 지도력, 결단력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 평가요소 중에서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가장 많은 독립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독립변인 중 이용 동기요인이 정보추구와 의제과급 참여요인인 기사전송은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

2.2.3.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에 관한 실증연구

다음으로 인터넷 정치광고 및 정치캠페인 관련 실증연구가 어떠한 개념과 구성요소,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념정의 및 구성요소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핵심개념의 정의 및 개념의 구성요소를 정리한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 연구의 핵심개념 및 정의와 구성요소

| 연구자 | 핵심개념 | 핵심개념의 정의 | 개념의 구성요소 |
|-----------|------------------|---------------------------------------------------------------------------------|-----------------------------|
| 박현길(2007) | 모바일 정치광고 | 정치광고 메시지의 구성요소는 슬로건, 배경음악(BGM), 캐릭터, 모바일 광고이며, 모바일 정치광고 유형은 소구, 메시지, 표현기법으로 구성됨 | 슬로건, 배경음악(BGM), 캐릭터, 모바일 광고 |
| 박창문(2009) | 인터넷선거캠페인 정치참여 변화 | 인터넷은 공직 선거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함 | 정치공급자, 정치수요자 |

박현길(2007)은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 시작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와 기능이 강화된 휴대폰을 매개로 하는 선거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휴대폰 선거운동은 기능이 다양화 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통해 유권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대폰이 1인 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의거하여 모바일 광고라는 매개물을 통한 정치광고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실험적 연구에는 MMS 기능을 모바일 미디어의 핵심의제로 채택하여 모바일 정치광고의 슬로건 메시지(문자), 모바일 정치광고의 실험자극물(그림/캐릭터, 영상, 사진)과 모바일 정치광고의 BGM(소리, 음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하고 있는 정치광고 메시지의 구성요소는 슬로건, 배경음악(BGM), 캐릭터, 모바일 광고로 구성된다. 첫째, 슬로건은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친밀감과 호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히 캠페인 슬로건은 장시간 반복 노출할 수 있는 다회성과 그 자체로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완전성을 갖는다.

둘째, 배경음악은 음악이라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차원을 고려해 볼 때, 이미지 형성 및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캐릭터는 일정한 기업이나 상품의 판촉활동과 광고에 있어서 특정 대상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반복해서 사용되는 인물이나 동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말한다. 캐릭터의 기능적 특성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제공함으로써 시선 집중효과 및 개성적인 성격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친근감과 호감도, 정체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모바일 광고는 모바일 무선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커뮤니케이션으로서 모바일 광고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개별적 또는 원하는 고객에게만 다양한 형태의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광고를 집행시킬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정치광고의 유형은 소구, 메시지, 표현기법으로 구성된다.

박창문(2009)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화의 특징을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변화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16대 대선과 17~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공급자와 정치수요자의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선거캠페인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공급자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변화 내용은 정보제공 내용, 의견수렴 내용, 수요자 동원 형태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캠페인을 공급자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수요자 인터넷 선거캠페인으로 구별하고 이 두 정치 주체의 인터넷 선거캠페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② 분석방법

인터넷 정치광고와 선거캠페인 관련 분야 실증연구의 분석방법은 <표-8>과 같이 정리된다.

박현길(2007)은 모바일 정치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대상자들에게 실험광고물을 제시하고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광고효과는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향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응답자들은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20~3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0명을 단순 추출하여 무작위로 처치조건에 할당하

였다. 한편 가설의 검증을 위해 측정 항목들 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변인들의 상호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선별 기준이 되는 요인 적재치에 따라 0.60 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변수로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의 값은 .923, 후보자 이미지 평가에 대한 값(.944),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도의 값(.931), 정치관여의 수준의 값(.844)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비교인 T-test, 두 집단 이상일 때의 평균비교인 2-way ANOVA, 집단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 인터넷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 관련 연구의 분석방법

| 연구자 | 표본집단 | 측정수단 | 분석방법 |
|------------|-------------------------------------------------------------------------------------|-------------------------------------------------------------------|-------------------------------------|
| 박현길 (2007) |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단순추출 N=300 | 요인 분석은 요인 적재치 0.60 이상인 경우만 중요 변수 포함,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활용 | T-test, 2-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
| 박창문 (2009) | 인터넷 선거캠페인 사례(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대통령 탄핵) 집합행동 사례(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 인터넷 선거캠페인 양상의 변화 내용으로 정보제공 내용, 의견수렴 내용, 수요자 동원 형태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 | 2차 자료 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로서 사례분석과 문헌분석 |

박창문(2009)은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스마트 맘(smart mob)의 정치참여 과정과 내용의 변화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공급자와 정치수요자의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선거캠페인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공급자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변화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정보제공 내용, 의견수렴 내용, 수요자 동원 형태 등 세 가지를 지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방법으로 2차 자료조사(secondary

analysis of survey data)에 의한 질적 연구로서 사례 분석과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선거캠페인 사례로는 2002년 제16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과 대통령 탄핵 등을 분석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집합행동 현상에 대한 사례로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사례를 들었다.

③ 분석결과

인터넷 정치광고와 선거캠페인 관련 분야 실증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은 <표-9>와 같다.

<표-9> 인터넷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 분야 연구의 분석결과

| 연구자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분석결과 |
|------------|------------------------------------------|-----------------------------------------------|------------------------------------------------------------------------------------------------|
| 박현길 (2007) | 모바일 정치광고 |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와 후보자에 대한 태도 및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도 차이 | 모바일 정치광고는 신속성과 쌍방향성, 정보 전달력과, 비용절감, 1인 미디어라는 장점 등을 가지고 있으며, 메시지 소유형에 따라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의 차이 발생 |
| 박창문 (2009) |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 |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스마트 맘의 정치참여 과정과 내용에 대한 변화 | ICTs발전은 인터넷 선거캠페인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박현길(2007)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8가지 유형별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와 후보자에 대한 태도 및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도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정치광고물 8개 유형을 제작하여 실험자극물로 활용하였다. 각 유형별 나타난 차이에서 모바일 정치광고 및 후보자들의 태도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각 메시지와 실험자극물에 따른 후보자간 상관관계와 투표의도, 모바일 정치광고를 통한 후보자 간의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정치광고는 기존 미디어와 비교해 신속성과 쌍방향성, 정보 전달력과, 비용절

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메시지 소구유형에 따라 모바일 정치광고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바일 정치광고의 소구유형(감성, 이성)과 슬로건 메시지(긍정, 이성), 표현기법(사진, 캐릭터)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박창문(2009)은 ICTs 발전은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는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참여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합행동에 있어 ICTs의 발전은 집합의 형성과정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참여주체의 다양화, 참여방식과 내용, 행동지향적 변화를 추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디지털정치 실증분석의 대표적 경향

위의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한 디지털정치 연구의 대표적 연구경향은 디지털 기반의 정치참여, 정치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정치광고 등 3가지로 정리된다. 특히 인터넷 스스로가 의제설정과 이익 집약, 표출 등 기존 정당이나 정치엘리트 등이 독점하던 정치사회화 역할을 수행하며, 인터넷 정치참여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자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사용행태와 인터넷 정치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정치참여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범순(2004)은 유권자, 네티즌, 비네티즌을 구분하여 유권자의 투표행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박주현(2009)의 연구도 인터넷 매체 이용자들의 후보자 평가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네티즌의 정치적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박봉수(2009)의 연구는 인터넷 정치참여가 지역적 관심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이 전국적 범위뿐 아니라 지역수준의 이슈에 있어서도 민감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정치 개념은 웹 및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정치참여, 정치적 효

능감, 정치적 자본 등 연구자의 관심 주제와 분석대상에 따라 개념을 조작하여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디지털정치가 실제 오프라인 정치와 어떤 맥락을 통해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바일 캠페인 전략이 유권자에게 설득력을 지니는지, 또한 역으로 유권자는 어떤 모바일 캠페인 콘텐츠에 상대적 선호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실증연구에서 인터넷 정치자본 및 사회자본,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경험적으로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영역의 확대와 엄밀성을 기함으로써 경험적 연구가 지닌 축적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정보의 흐름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터넷은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당정치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할 것이다.

디지털정치 연구경향이 초기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같은 규범적 연구, 인터넷 사회경제적 의미 등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참여공간과 참여양식과 같은 폭 넓은 주제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경험적 지표를 통한 설명과 예측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의 축적성을 담보하고 있다.

디지털정치 개념은 단순히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 수단의 발전에 따른 정치적 의사소통체계의 변화만을 포함하는 규범적 의미로 파악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정치행위 양식의 하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수단이 정치 일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정치와는 별개로 독립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오프라인 정치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기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시도한 실증연구의 경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정치가 시민의 정치적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양식과 패턴이 오프라인과

비교해 온라인에서 어떤 차별성을 지니며, 특히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정치의 구체적 작동 원리와 현상, 그리고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디지털정치의 실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 기반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반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투표에서의 후보자 선택 등에 대한 배경적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들 요인이 어떤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유권자의 디지털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같은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디지털정치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가 발굴되고 축적됨으로써 변화하는 정치사회 환경에 대한 엄밀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노규성, 박영민(2003), “한국의 디지털정치와 전자 정당의 실현 조건과 과제” 「디지털정책연구」 제1권 1호.

[2] 류정호(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3] 박봉수(2009), “인터넷 활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익산시민의 경우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논문.

[4] 박주현(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 의제파급 및 게이트키퍼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5] 박창문(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집합행동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논문.

[6] 박현길(2007), “모바일 정치광고의 광고메시지 유형에 따른 영향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7] 신범순(2006), “네티즌의 투표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6.

[8] 유석진·이현우·이원태(2005), “인터넷의 정치

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메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권 3호.

[9] 정연정(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

[10] 정연정·조성대(2004), “한국네티즌의 주요 구성과 정치적 특성: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0권 1호.

[11] 정태환(2005), “인터넷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명지대 박사논문.



박 영 민

1992년 한국외대 정외과 (정치학사)
 1994년 한국외대 대학원 정외과 (정치학석사)
 1997년 한국외대 대학원 정외과 (박사 수료)
 1996년~현재 한국외대, 조선대 강사
 관심분야 : 남북한관계, 한국정치, 디지털정치
 E-mail : mogsori@paran.com

디지털정치 실증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박영민[†]

초 록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정치 관련 국내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실증분석을 시도한 2004년 이후 박사학위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디지털정치에 대한 연구경향을 정치참여, 정치과정,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분석의 틀, 그리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해당 주제의 연구모형과 분석단위, 개념 및 개념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정치가 실제 시민의 정치적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연구는 과거의 규범적 연구를 넘어 디지털 정치연구의 작동 원리와 현상, 다양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과 축적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보다 다양한 변수 및 지표개발이 요구되며, 정당을 포함한 정치 단체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간 권력관계와 영향력 관계 등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키워드: 디지털정치, 실증분석, 정치참여, 정치과정, 정치광고, 선거캠페인